

## 책머리에

2019년이 저물어간다. 어느 해나 그러했듯 지난 1년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될 것이다. 그래도 2019년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올해의 키워드는 ‘조국’일 것이다.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이후 조국 장관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검찰이 노골적으로 직접 개입하면서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은 더 거칠어졌다. 이에 9월 16일부터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수백 명 정도가 모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여자가 늘어났다. 9월 28일 촛불집회에는, 지난 2016~2017년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던 촛불집회 이후 최대 인파가 서초동 일대에 운집했다. 그 뒤 10월 5일과 12일의 촛불집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검찰 개혁’을 외쳤다. 반면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는 보수야당과 소위 태극기부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 며칠 전에 열렸던 서초동 집회와 마찬가지로 광화문

집회의 참가인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숫자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2016년 촛불이 뒤덮었던 그 자리 위에 성격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광화문의 대규모 집회는 10월 9일 한 차례 더 이어졌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이루어진 상반된 목소리의 결집은,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론 분열’ 양상으로 비춰졌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 떨어졌다. 결국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사퇴했다. 조국 장관의 사퇴 후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의 열기는 점차 식어 갔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검찰의 집착과 맞물려 여전히 진행 중이다.

흔히 ‘서초동 집회=조국 수호=진보’, ‘광화문 집회=조국 반대=보수’의 구도를 말하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치 않다. 검찰에 분노하여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보수야당이나 태극기부대로 환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사회적 연대’보다 ‘공정한 경쟁’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중에는, 2016~2017년에는 촛불을 들었으나 이번에는 ‘조국 반대’를 외친 경우가 꽤 있었다.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조국 사태’에 대한 여론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했다. 2019년 ‘조국 사태’의 기억이 향후 한국 민주주의 전망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앞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기억과전망』 41호의 특집 제목은 <‘탄핵촛불’의 다양성>이다.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다. 그 양상 역시 비폭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상이한 여러 지향과 전선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특집 첫 번째 논문인 임미리의 「2016~2017년 촛불집회의 두 가지 전선에 관한 연구」는 이를 분석한 글이다. 이 논문은 촛불집회가 비폭력과 더불어 준법과 시민적 덕목이 요구·관철된 집회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촛불집회의 공간을 공권력과의 대치 유무에 따라 물리적 전선과 추상적 전선으로 나누었다. 반 박근혜 전선이라는 보수적 현실태의 이면에 반 신자유주의 또는 반 자본, 반 재벌 같은 혁명적 잠재태가 있었는데, 이는 가시화와 비가시화의 차원을 넘어 서로 다른 전선을 갖고 있었고 그 다른 전선의 적 또한 다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적을 박근혜 1인에 한정시켜 박근혜의 퇴진과 통치체제의 안정, 뒤이은 정권교체에는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적 요구와 통치체제를 뛰어넘는 정치적 상상력은 제한 당했고 시민과 비시민의 경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비시민은 아예 광장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촛불집회 당시 등장한 다양한 깃발들은 또 다른 균열, 또 다른 전선의 가능성을 예고할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전선의 접합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지난 촛불집회가 보여준 보수성이자 동시에 혁명성이었다.

특집 두 번째 논문인 엄은희·박준영의 「재외동포의 사회운동과 정치적 역동: 416자카르타촛불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는 촛불집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여러 주체들 가운데 해외의 재외동포, 특히 인도네시아의 재외동포와 그 조직 '촛불행동JKT'에 주목한 글이다. 이 논문은 이들의 참여와 조직화의 과정을 '풀뿌리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원거리 민족주의'와 '세계시민되기'라는 이론적 분석틀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정상성 회복을 위한 원거리 민족주의의 발현은 '촛불행동JKT'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동인이 되었다. 그러나 '정상성'이라는 추상적이며 상대적인 목표는 구성원 각자가 상이한 정상성을 상상하게 만들었고, 이는 종종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세계시민되기' 실천과정에서 촛불행동JKT의 활동은 글로벌 한인으로 국가와 민족적 주제를 보편적 가치로 확대시키며 인도네시아 현지사회 및 글로벌 한인 단체들과의 연대를 촉진했다.

특집 외에 이번 41호에는 5편의 일반논문을 실었다. 김영순의 「한국의 시민운동과 복지국가로의 우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는 복지국가의 저발전 속에서도 일어난 발전, 즉 무복지 국가 상태에서 '작은 복지국가'로의 진화 동인으로 시민사회운동을 주목한 글이다. 한국에서 종합적 시민운동단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했고, 제휴형성 능력을 통해 조직적 취약함을 극복함으로써 여론을 동원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로 하여금 진보적 사회 정책들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연성 권력자원을 이용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눈

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권력이 집중되고 거부점(veto point)이 적은 한국의 정치제도적 특성은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쉽게 증폭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재분배와 평등이라는 물질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사회운동이 다양한 수단으로 여론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자들을 움직임으로써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은 그 성취만큼이나 많은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이현정의 「4.16교실 존치 투쟁과 새로운 장소성의 생성: 피해자성의 기억론을 넘어 인격성의 기억론을 향하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 2학년 교실존치 투쟁의 배경과 그 과정의 역동을 살펴본 글이다. 이 논문은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유가족 등 현장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 역학 관계에 주목하여, 단원고 2학년 교실이 '4.16기억교실'로 자리 잡게 되는 정치적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단원고 2학년 교실의 존치 논란 속 장소성의 보존과 삭제를 둘러싼 집단 간의 의미경합이, 우리 사회가 갖는 진영 간 대립, 이익을 향한 집단적 이기심의 표면화, 담론적 과제에 집중하는 운동 경향,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망각 등 여러 가지 불편하고도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냈음을 강조한다.

박철의 「1980년대 한국 기독교노동자와 노동운동: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련)의 형성과 역할」은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1980년대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련)의 역사를 정리·분석한 글이다. 기노련은 유화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한국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 같은 역사적 배

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기독교노동자들이라는 인적 자원이 있었고,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이용하여 합법성을 유지했으며, 부족한 자금 사정 가운데서도 활용 가능한 여러 물질적 자원들(인맥, 네트워크, 교회장소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민중을 이해하는 주관적 가치에 근거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렇게 형성된 기노련은 노동운동에서 요구되는 여러 사항, 특히 공개적인 특성을 살려 전개할 수 있었던 정치투쟁과 노조 지원, 대중집회, 연대운동 등을 실천하였다.

허민의 「6월 항쟁과 문학장의 민주화: 해금 전후(사)의 역사 인식과 항쟁 이후의 문학(론)」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문학장의 민주화’를 대표하는 ‘해금’이 어떠한 역사인식 속에서 쟁취된 것인지를 개괄하고, 이러한 해금을 계기로 등장한 ‘항쟁 이후의 문학(론)’과 소설적 주체의 확장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본 글이다. 해금은 금지된 작품과 작가를 복원해준 계기이면서도, 바로 그러한 금서들이 담지하고 있던 문학의 불온한 정치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항쟁 이후의 문학(론)’은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소설에 대한 여러 전망과 기대를 양산했고, 이는 민족민중문학 진영의 재편과 연동되며, 역사 변혁의 주체에 대한 당대적 인식의 분화를 함의했다. 또한 항쟁을 전후하여 형성되고 있던 역사 인식은 과거 냉전 논리에 함몰된 반쪽짜리 문학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탈냉전적 문학사 인식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전누리의 「고등학생운동 참여자의 사회진출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운

동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그 영향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나타난 고등학생운동 참여자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고민과 그 진출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생운동 참여자들이 고교 졸업 이후 선택했던 사회진출의 과정과 의미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운동의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형성과 그 영향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대)학생운동, 교사운동 등 기존 사회운동의 영향 아래서 일군의 중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그에 수반된 민중지향성을 띤 사회변혁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을 통해 사회가 요구했던 대학 진학이란 진로 외에도 노동현장으로의 진출, 고등학생운동의 지원·지도 등의 사회진출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 실천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상의 7편의 논문과 더불어 1편의 회고록과 1편의 서평이 『기억과 전망』 41호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학생운동을 거쳐 평생을 보건의료운동과 노동자건강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에 헌신해온 양길승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의 회고록 「녹색병원의 꿈」은 한 운동가의 치열한 삶을 담아낸 역사 자료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운동과 노동자건강운동 과정에서 그가 동료들과 함께 만들고 이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과건강연구회,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 등의 설립 배경이 잘 나와 있어, 한국 보건의료운동과 노동자건강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최근 간행된 『불평등의 세대』(이철승, 2019, 문학과지성사)에 대한 이상직

의 서평 「세대, 한국형 위계 구조의 핵심 차원」은, 이 책의 의의와 의문점을 상세하게 지적하였다. 이 서평은 『불평등의 세대』를 과거 간행된 『88만원 세대』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했다. 또 세대론이 작동하는 맥락을 한국 사회, 나아가 동아시아의 위계 구조로 확장함으로써 ‘세대’를 한국형 위계 구조의 변동을 해명하는 시각으로까지 격상시켰다며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서평은 『불평등의 세대』가 한국형 위계 구조의 핵심으로 규정한 ‘연공제’의 성격과 그것의 해결방안 등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불평등의 세대』와 이에 대한 『기억과 전망』의 서평 모두 ‘사회적 연대’보다 ‘공정한 경쟁’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청년들이 ‘조국 사태’에 보인 태도,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과 이에 대한 개혁 논의 전반에 대해 현재 그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제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온다. 2020년은 충선의 해이자, 4월 혁명 60주년, 전태일분신 50주년, 5.18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기억할 것도 많고 전망할 것도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러한 2020년의 기억과 전망에 학술지 『기억과전망』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짐해 본다. ~~수익~~

2019년 12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제연 씀